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September + October 09/10 Vol. 172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September + October 09/10

Vol. 172



04 한눈에 보는 질병
침묵의 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대장암



16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20 내 삶의 활력
'심Phon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창 동호회



22 건강한 동행
개원 60주년 맞이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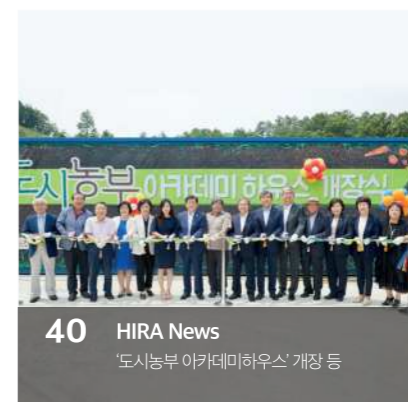
32 그곳에 가면
오늘만큼은 럭셔리하게
삼척에서의 브로맨스



36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잠자는 텀블러로 일상 속 변화를 일깨우다



38 마음 연구소
무기력의 눈에 빠지지 않았나요?
'번아웃 증후군'



40 HIRA News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 등



46 의약계 안내사항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실시
(2019년도 1차) 등

대한민국의 건강 심평원이 지킵니다

국민이 낸 진료비가 적절했는지
국민이 다니는 병원이 진료를 잘 하는지
국민이 먹는 항생제는 적정하게 처방되었는지

진심을 다해 심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진심과 공평
심 평

조현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모델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2019 09/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전문지 Vol. 172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Contents

건강한 이야기

- 04 **한눈에 보는 질병**
침묵의 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대장암
- 08 **질병 A to Z**
꼭 알아야 할 대장암 발생과 예방법

행복한 이야기

- 14 **HIRA 톨아보기**
보건의료빅데이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
- 16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 20 **내 삶의 활력**
'심Phon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창 동호회
- 22 **건강한 동행**
개원 60주년 맞이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26 **정책 이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28 **문화 산책**
낭만의 계절 가을, 문화 향기에 취해볼까?
- 32 **그곳에 가면**
오늘만큼은 럭셔리하게! 삼척에서의 브로맨스
- 36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잠자는 텀블러로 일상 속 변화를 일깨우다
- 38 **마음 연구소**
무기력의 눈에 빠지지 않았나요? '번아웃 증후군'
- 40 **HIRA News**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 등
- 42 **독자의 소리**
경기도 의정부시 조석 님 등

유익한 이야기

- 의약계 안내사항**
- 46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실시(2019년도, 1차)**
- 48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19년도, 상반기)**
- 50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52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실시(2019년도, 하반기)**
- 54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및 대상 항목**
- 56 **안과 전문병원 제도**
- 58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팟캐스트 <오케바디>: <http://www.podbbang.com/ch/9584>
 심평TV: <http://hiratv.or.kr>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대장암 Colorectal Canc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발행일_ 2019년 9월 23일 통권 제172호 발행처_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_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_ 김승택 편집인_ 김형호
 기획 디자인_ 유니크플러스 인쇄_ 세원문화사
 고객센터_ 1644-2000 / 033-739-0324

Colorectal Cancer

침묵의 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대장암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악성신생물(암)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7.6%로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했다. 그중 대장암은 폐암, 간암에 이어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꼽힌다. 증상을 알아챘을 때는 상당히 진행됐을 확률이 높은 대장암.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를 통해 대장암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알아보자.

*주의사항

본 통계는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실제 환자 수치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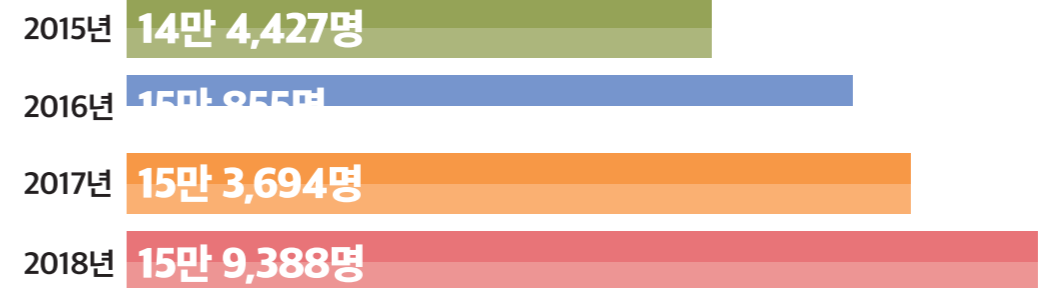


대장암(Colorectal Cancer)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해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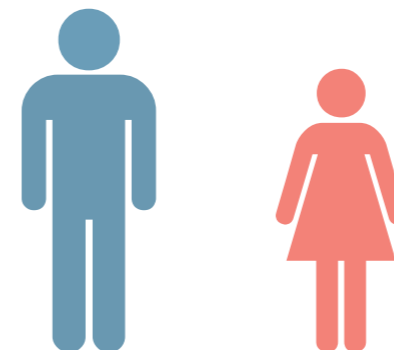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 국민관심질병통계(2018년)

연도별 대장암 환자수? 꾸준히 증가 추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장암을 알고 있을까?
15만 9,388명

남성 **9만 5,807명** 여성 **6만 3,581명**



환자 1인당
연평균 영양급여비용은?
509만 1,557원

남성 **512만 5,894원** 여성 **503만 9,818원**



Colorectal Cancer

환자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463만 3,236원

대장암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463만 3,236원이며, 남성은 467만 6,398원, 여성은 456만 8,196원이다.



남성 **467만 6,398원** 여성 **456만 8,196원**



남성 60대
3만 2,819명



여성 60대
1만 7,843명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6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모두 60대이다. 남성은 60대(3만 2,819명) > 70대(2만 7,420명) > 50대(2만 1,384명) 순이며, 여성은 60대(1만 7,843명) > 70대(1만 7,660명) > 50대(1만 4,232명) 순이다.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60대, 여성 80대

연령구간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60대, 여성은 80대 이상이다.

남성은 60대(50만 5,725일) > 70대(42만 627일) > 50대(36만 1,836일) 순이며, 여성은 80대 이상(32만 5,031일) > 70대(29만 7,154일) > 60대(27만 842일) 순이다.



남성 60대
50만 5,7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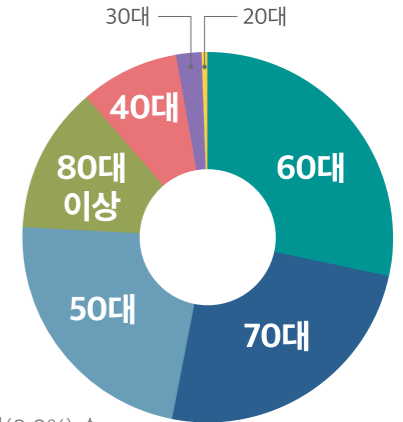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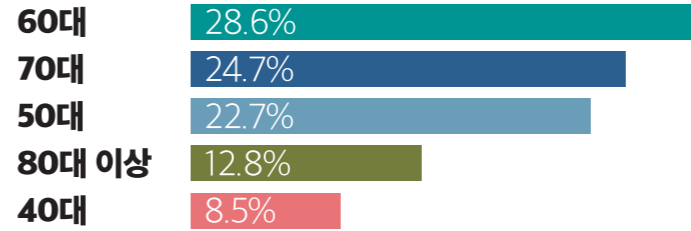


여성 80대 이상
32만 5,031일

Colorectal Cancer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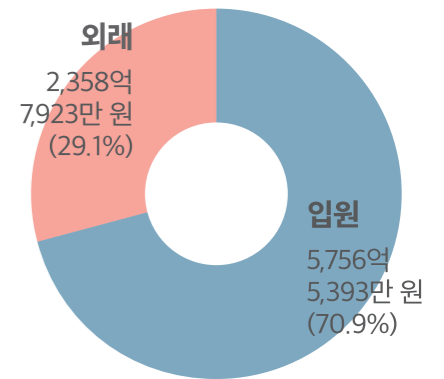
[연령대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



※ 이외 30대(2.3%) > 20대(0.4%) > 10대(0.0%), 10대 미만(0.0%) 순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은?
입원 70.9%, 외래 29.1%

입원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5,756억 5,393만 원**
외래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2,358억 7,923만 원**이다.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



보건기관
1,068일



의원급
9만 1,510일



종합병원
67만 9,2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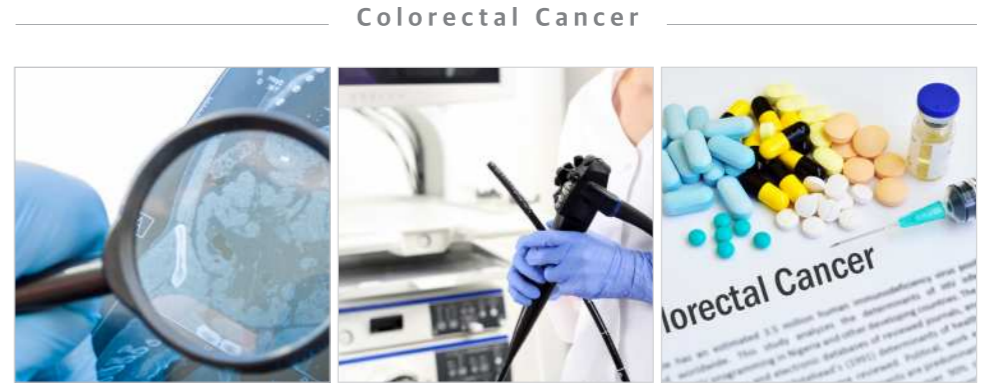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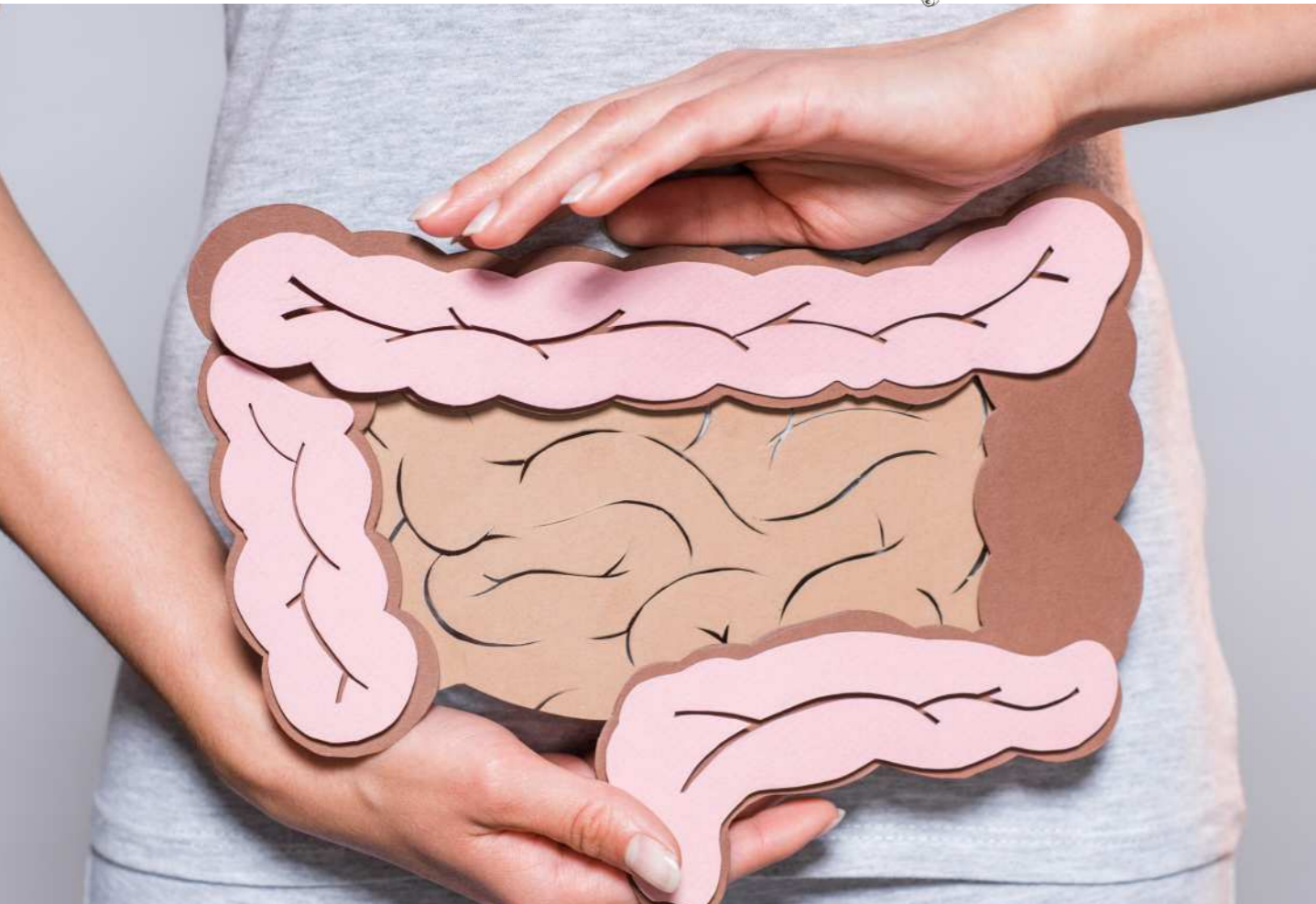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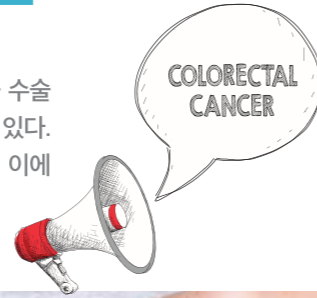
병원급
82만 9,148일



상급종합병원
134만 1,737일

꼭 알아야 할 대장암 발생과 예방법

대장암은 국내 5대 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증가하는 암이다. 과거에는 대장암을 수술만으로 치료했지만, 이제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완치율을 더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기 검진만으로도 대장암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생활 습관을 교정해 대장암 예방 및 완치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대장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항문에서 15cm까지의 대장을 직장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을 결장으로 분류한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암의 통칭이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발병하던 위암은 조기 검진으로 발병률이 낮아지는 데 반해, 대장암의 발병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에서 국제암연구소의 세계 암 보고서인 '글로벌칸(Globocan) 2018'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10만 명당 314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세계 14위에 해당한다. 위암 발생률은 세계 1위이며, 그다음으로 대장암이 세계 2위의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발생률이 높은 것에 비해 발생 대비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위암은 185위, 대장암은 186위이다. 이는 건강보험에 바탕을 둔 검진과 치료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기반을 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에 내시경을 포함함으로써 위암의 조기 검

진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 대장암 또한 분변잠혈 검사와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지는 검진 시스템을 통해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

위암의 사망률은 위내시경과 제균요법을 통해 비약적으로 감소했지만, 대장암의 사망률은 그렇지 못하다. 2017년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7.1명)은 위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5.7명)을 추월했다. 대장암의 위협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대장암은 왜 발생할까

대장암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은 생활 습관이다. 특히 식생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과 동물성 지방은 대장암 발병률을 크게 높인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채소와 발효 음식이 주를 이루는 우리의 전통 식생활과 달리, 요즘 빠르게 증가하는 육류와 인스턴트 중심의 서구화된 식습관은 대장암 발병에 큰 영향을 끼



친다.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됐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50~56% 정도 증가했다.

비단 서구화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대장암과 관련 있다.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 분비를 촉진해 종양의 성장 촉진 및 사멸 억제를 유도한다. 다시 말하면, 흰 쌀밥이 현미밥보다 대장암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만 및 활동량 감소도 대장암과 관련 있다. 비만 자체가 직접적으로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활동량 감소로 유발된 변비는 대변 속 발암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 증가 시켜 발암 가능성을 높인다.

식습관 이상으로 중요한 생활습관이 바로 운동이다. 세계 보건기구, 미국 질병관리본부, 미국암협회에서도 공통으로 운동을 권장한다. 하루 1시간 이상의 여가 및 신체 활동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43% 감소시킨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훨씬 도움 된다.

이밖에 유전적 요인도 대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계 가족 중 암 환자가 두 명 이상 있다면 일찍부터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의 대장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유전적 질환도 있으므로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장암의 증상은 무엇인가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혈변, 배변 습관 변화, 만성적인 복통, 변을 본 후의 지속적인 잔변감 등이다. 하지만 대장암은 확실한 증상이 없다. 암 대부분이 그렇듯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며, 증상을 일으킬 정도면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대장암 완치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며, 정기적인 검진만이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대장내시경을 권장하는 기간은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면 대장암에 대한 큰 걱정은 일단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기 검진 이외에도 상기에 언급한 증상을 느낀다면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대장암, 어떻게 예방할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및 과일 섭취

식이섬유의 충분한 섭취는 대장암 발병률을 40~50%까지 낮추며, 특히 채소를 통한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식이섬유는 대장의 내용물을 빠르게 배출하게 하며, 장내 유익한 미생물에도 풍부한 영양을 제공한다.

붉은색 고기 및 육가공품 섭취 제한

붉은색 고기가 대장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육가공품은 여러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대표적 기전으로 생각된다. 이미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는 과음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선언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는 20% 정도로 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대장암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이다. 특히 대장암의 전 단계인 대장 용종 개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다.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건강 검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건강 검진이다. 대장암이 대장 용종부터 시작해 암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이에 발견한다면 용종 단계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며, 우리나라는 50세 이후부터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검사를 권장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서 10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장년 이후에는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꾸준히 건강 검진을 하자.



첨가제를 함유해 대장암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붉은색 고기 및 육가공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류는 통제된 범위 안에서 소량만 섭취하기를 권한다.

꾸준한 운동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다. 적정 체중 유지를 도와 비만을 예방하며, 면역 기능 강화 및 인슐린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의 조절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볍게 달리기나 걷는 등의 운동은 대장의 연동운동을 도움으로써 대변의 대장 내 잔류 시간을 줄여 변비를 예방한다.

비만 예방

최근 발표된 체계적 고찰연구는 청장년기에 비만이 됐을 때 대장암 위험도가 40% 증가한다고 밝혔다. 중년 이후의 비만은 20%로 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대장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비만은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인식되며, 대장암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으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금주 및 금연

그동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하의 음주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많이 높이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음주는 대장암 위험도를 20~50% 증가시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항암 효과가 있는 엽산의 흡수를 저해하는 것이 음주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요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장을 위한 추천 요리 2선

대장암에 가장 좋은 식단은 고기는 제한하지만, 생선은 먹는 채식 식단인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다. 이것 외에도 채식 식단에 기본을 둔 다양한 식단이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 좋다고 발표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해야 하겠다.

고등어 파스타

재료 (2인분)

고등어 1/2마리, 파스타 160g, 브로콜리 1/2개, 마른 고추 1개, 마늘 5쪽, 레몬즙 1작은술, 올리브오일 5큰술, 소금, 후추, 파마산치즈, 바질 약간

요리법

- ① 마늘은 편으로 썰고 브로콜리는 한입 크기로 자른다.
- ② 고추는 가위로 잘라준다.
- ③ 고등어는 살만 준비해 큼직하게 자른 후, 소금, 후추, 레몬즙으로 밑간하고 마른 고추와 올리브오일 2큰술에 마리네이드(Marinade)한다.
- ④ 넉넉한 물에 소금 1큰술을 넣고 브로콜리를 데친 후 건진다. 이어 파스타면을 면을 넣고 8~11분 삶는다.
- ⑤ 면을 삶은 물 반 컵은 면수로 담아둔다.
- ⑥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넣어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마리네이드한 고등어를 넣고 볶는다.
- ⑦ 고등어가 노릇하게 익으면 삶은 면과 면수를 넣고 잘 섞는다.
- ⑧ 브로콜리를 더하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⑨ 그릇에 덜어 파마산치즈와 바질을 올린 뒤 올리브오일을 두른다.

시금치 페스토와 구운 채소

재료 (2인분)

시금치 5뿌리, 올리브오일 1/2컵, 마늘 2쪽, 캐슈너트 2큰술, 소금 1/2작은술, 감자 5개, 당근 1개, 방울토마토 5개

요리법

- ① 시금치는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하고 캐슈너트는 대충 잘라 놓는다.
- ② 믹서기에 시금치와 마늘, 캐슈너트를 넣고 올리브오일은 3~4번에 나누어 넣으며 곱게 갈아낸다.
- ③ 감자는 반 자르고 끓는 물에 15분 정도 삶아서 준비한 뒤 당근은 세로로 8등분한 후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두르고 굽는다.
- ④ 페스토와 찐 감자와 구운 당근, 방울토마토를 담아낸다.

Tip 캐슈너트는 잣 또는 아몬드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전문의가 추천하는 식재료 & 식습관

- **자주감자:** 자주감자와 같은 다양한 색의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많은 뿌리 식물이 항염증 효과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 **참외:** 엽산이 풍부하다. 엽산은 대장암뿐 아니라 여러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씨까지 먹는 것을 추천한다.
- **키위:** 엽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다.
- **등푸른생선(참치, 꽂치, 고등어):** DHA, EPA 등 오메가 3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 우리 몸에 유익한 지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피리독신(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는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금치:** 녹황색 채소의 섬유질은 대장암에 좋은 영향을 준다.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칼슘은 대장의 용종 발생을 낮추며, 마그네슘은 대장암을 낮춘다고 보고돼 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채소 대부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골고루 섭취하자.

* 대장암은 다른 어떤 종류의 암보다도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장 자체가 식품의 마지막 단계인 대변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소량씩 자주 먹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대장까지 영양분이 도달할 수 있으므로 대장에 좋은 음식은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음식이 많다. 질긴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들이 대표적인 예다. 전통적인 한식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로 요리되는 음식이 많다.

보건의료빅데이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개방해 의약계 임상 연구, ICT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혁신 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소개합니다.

HIRA 톺아보기

*'톺아보다'는 순우리말로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정보 등 34종의 공공데이터 정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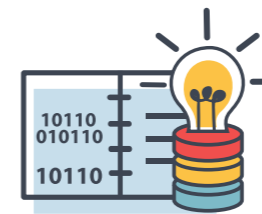
의료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또한 국민, 의료계, 학계 등 고객 수요에 맞춰 질병통계, 의약품사용통계, 의료자원 현황 등 123종의 보건의료 기초통계지표를 제공합니다.



의료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전문 분석을 원하는 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도 지원합니다.



의료이용지도 서비스

이외에도 GIS(지리 정보 체계,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기반한 환자 진료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융·복합 커뮤니티 공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원주, 서울)과 9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전주, 인천)에 총 55석의 분석 공간과 210개의 원격 계정을 두고 내·외부 어디서든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소통 강화로 의료 문화 발전에 앞장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지난해 충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 내 의료기관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미청구 진료비 73억 원을 찾아준 것이다.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대전지원의 가치가 확인된 사례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기관 삼고초려는 물론, 비 오는 날에도 발품을 파는 대전지원의 분주한 일상을 함께 한다.



전문심사위원회와 함께 의료기관 수용성 개선

2000년에 출범한 대전지원은 89명의 직원이 충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553만 주민과 9,800여 개 요양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는 7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전지원의 제1원칙은 현장이다. 물론 요양기관 및 의료인과의 소통이 중요한 심평원의 업무 특성상 모든 지원이 현장 방문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대전지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전문심사위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심평원의 방문을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라며 “더 원활히 소통하고자 그들의 입장을 잘 아는 전문심사위원을 대동함으로써 대화의 벽을 낮추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지원은 의료분과별 전문가는 물론 한의학까지 망라한 전문심사위원진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 방문 시 전문심사위원과 함께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더욱 심도 있게 확인하게 됐고, 전문성이 가미된 논의를 통해 유연하게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효적인 사례도 풍부하다. 대표적으로 충북의 한의원과의 대전의 이비인후과를 꼽을 수 있다. 충북 모 한의원은 2011



▼ 오영식 대전지원장



년도 4분기부터 개선 관련 통보를 30여 차례나 전달했음에도 7년이나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지원은 현직 한의사 전문심사위원과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소통과 유연한 설득을 병행함으로써 내원일수지표를 1.32에서 1.22로 10%가량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대전시 모 이비인후과는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의 장기처방률 지표 미개선 기관으로 분류됐다. 대전지원은 대전 지역 내 같은 분야 전문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개선에 힘을 더했고, 이는 30일 이상 장기처방률 0%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 지원장은 지역 내 요양기관 역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려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의료기관과 원활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사람이다. 모든 일의 주체가 사람만큼 이해와 배려를 통한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외부 다양한 소통으로 지원 역할 재정립

대전지원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단국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심평원의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의료 발전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오 지원장은 “심평원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뇌혈관 및 암 질환, 중증외상, 응급질환자 등 예방의학적 측면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보건의로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을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교육 실시, 공공기관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원과 단국대학교병원과의 해당 협약은 심평원이 수십 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주민들과 다채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점도 대전지원의 특징이다. 대전지원은 지역 대표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지원 내 회의실과 편의 시설 등을 전면 개방하고 있다.

오 지원장은 “모든 정책의 목적이 주민으로 귀결되는 만큼, 자주 그리고 직접 만날 기회가 절실했다”라며 2017년부터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석해 각종 서비스 및 정책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과의 거리 좁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만족해-U 서비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전지원만의 정책이다. 해당 서비스는 대전지원의 업무를 직접 접하고

객에게 즉각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에 적용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대전지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축적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분석함으로써 민원 동향을 파악·예측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매뉴얼화하는 ‘상담지식 내비게이션’ 도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오 지원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라며 “꾸준히 주민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의료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원은 내부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주대장의 공감토크’가 그 예다. ‘주대장’은 주임, 대리, 과·차·부·지원장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지은 명칭이다. 쉽게 말해 직급 구분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이다. 직원들은 이 시간에 애로사항이나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한 각종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 지원장은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직원도 지금은 거침없이 의견을 말한다”라며 “직원들을 위한 고충 처리반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다”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심평원은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 지원 역시 이에 맞춰 역할 재정립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지금까지의 노력 위에 새로운 모습을 더해 주민들에게 다가갈 대전지원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의료문화 발전에 앞장설 것’

대전지원은 올해 조직문화 자체진단 결과 9.19점을 획득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으로 뽑혔습니다.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 종합점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자존감과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



‘현장 방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해’

대전지원은 현장 중심 운영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전 및 충청 지역 요양기관과 지역의료발전상생협의체, 정보화지원협의회 등 다수의 유관기관 및 단체를 개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구오류 사전정보 제공과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송후빈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것’

저는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자원 정보는 심평원의 주요 업무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건의로 인프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내채우 고객지원부 과장**



‘공정·균형 심사로 자율적 적정진료 문화 실현’

저는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종합병원과 1:1 맞춤형간담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청구오류 예방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균형 심사로 자율적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정확한 청구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심사평가2부 과장**



심평원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심Phon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창 동호회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울퉁불퉁한 발은 관객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수많은 시간 동안 단련해 얻은 훈장이다. 이렇듯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잠깐의 공연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습에 할애한다. 무대 위 3분의 완벽한 하모니를 위해 300시간을 할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창 동호회 ‘심Phony’의 무대 뒤 모습을 함께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이 넘치는 ‘심Phony’

올해 초 창단한 ‘심Phony’는 회원 41명으로 구성된 심평원 유일의 합창 동호회다. 30년 이상 합창단 활동을 해온 심사관리실 심판청 구부 이성욱 차장의 기획을 통해 기틀을 다진 심Phony는 유미영 실장의 합류로 비로소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성욱 차장은 “수년 전부터 합창 동호회 조직을 계획했지만, 이를 이끌어줄 선장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중 유미영 실장이 가담해 명실상부한 실체를 갖추게 됐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재 심Phony는 26명의 서울사무소 직원과 10명의 원주 본원 직원, 5명의 명예 회원 등 총 41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제 출범하여 걸음마 단계인 심Phony의 연습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서울사무소에는 30년이 넘는 낡은 가정용 피아노 한 대뿐이다. 그나마 원주 본원에는 전자 키보드가 전부일 정도다. 이 차장은 “서울사무소의 피아노를 등에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고민이 많다”라며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욕심 내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 비록, 세월이 쌓인 피아노 한 대로 연습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심Phony 회원들의 서로를 위한 배려와 열정만은 프로 합창단 못지않다. 부단한 연습은 물론, 회원 저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의 신청부 유안나 과장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동호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공공심사부 유연실 대리는 반주와 악보 정리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 행사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주 4회 자율적으로 참여해 연습하는 심Phony 단원들의 실력은 한발 한발 사다리를 딛고 오르듯 묵묵히 성장하고 있다. 이 차장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음을 다듬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 덕분에 참석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화와 화합, 즉 하모니(Harmony)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추구하는 합창은 동료와의 어우러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사 세계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합류한다고 해도 다른 동료들과 화음이 맞지 않는다면 합창에서는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게 이 차장의 지론이다. 따라서 이 차장은 “합창은 동료들과 원활한 협조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직장 생활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라며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합창을 통해 직장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배려와 양보, 어우러짐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는 말로 합창의 가치를 설명했다. 물론, 심Phony 회원들이 ‘정신적 만족’만을 위해 연습에 열중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올해 말 서울사무소의 원주 이전과 제2사옥 출범 등 굵직한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심Phony는 심평원의 경사를 축하하는 무대를 직접 꾸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발 더 나아가, 향후 심평원에서 진행할 각종 행사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야심(?)도 숨기지 않았다. 이 차장은 “심평원 행사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무대를 꾸민다면 대내외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라며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으로 우리원 행사에 섭외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심평원의 마스코트를 꿈꾸며,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노래에 실어 보내는 심Phony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기분 좋게 귀를 간지럽힌다.

차별화 전략과 정체성 확보를 통한 역동적이고 위대한 도약

개원 60주년 맞이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올해로 개원 60주년을 맞이했다. 수십 년 세월을 강원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국내 의료계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개원 6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묵묵한 발자취를 따라간다.



※ 고객홍보실 김형호 실장, 홍보부 이호 부장, 김지현 차장이 취재에 동행했습니다.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료 서비스 질 높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주디와 모레리 선교사의 헌신으로 지난 1959년 문을 연 50병상의 원주연합기독병원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60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과 성장,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현재 867병상 2,000여 명의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는 강원 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가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구축을 비롯해 1,500회 이상의 닥터헬기 운영, 8,800례를 기록 중인 고압산소치료센터 및 600회 이상의 수술을 진행한 강원도 최초의 로봇수술센터 등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국내 우수 대형병원과의 차별성 확보를 목표로 혁신과 발전을 멈추지 않으려 노력해왔다”라며 “특히 타 병원과의 경쟁이 아닌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에 주안점을 둔 운영철학을 고수해왔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백 병원장의 말마따나 지난 1991년, 원주의과대학에서는 국내 최초로 응급의학교실을 개설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대한민국 응급의학의 시초로 인정받는 배경이다. 특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16년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설, 국내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중증 일산화탄소중독환자의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



▲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원 측의 의견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냈다. 고압산소치료 보험 적용 항목 확대가 병원의 수익성이 아닌 환자들의 의료권 제고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

백 병원장은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하고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한층 가까워짐에 따라 보다 원활한 소통창구를 열었고, 덕분에 빠른 시간에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자주 왕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는 동반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고압산소치료의 보험 적용 항목은 총 14개다. 앞으로 적용 항목이 더욱 늘어나야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치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요청과 심평원의 긍정적인 검토는 보험 적용 확대로 이어졌고, 결국 국내 유일의 365일 24시간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환자 역시 부담 없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더없이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본원의 원주 이전으로 이제는 ‘이웃사촌’이 된 심평원과의 소통에 대해 ‘언제든 OK’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강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변화와 혁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새로운 시대, 융합연구 및 다학제 진료 활성화를 통한 진료 역량 극대화 올해로 개원 60주년을 맞이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헬스케어로 대표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본원의 확장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전략과제 및 지표설정 추진을 통해 스피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듭 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다.

백 병원장은 “최근 원주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만큼 우리 병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혁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인공지능빅데이터의학센터와 정밀의학과 설립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병원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철저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진료의 효율성 제고의 기반이 될 인공지능빅데이터의학센터와 대표적인 미래 의학으로 손꼽히는 정밀의학과 개설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평원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의료 발전에 재투자함으로써 병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백 병원장은 “융합 및 중개연구를 통해 병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다시 병원과 대학의 발전과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의료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개발하는 한편 분야별 특성화로 경쟁력을 갖춘 기초 임상 분야의 이른바 ‘스타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선도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충실히 하고 있다. 강원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받은 까닭이다.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2018년 평창올림픽 공식지정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 원장은 “우리 병원은 항상 강원도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라며 “병원의 혁신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함께 노력해 주민들에게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료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병·의원과의 꾸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매년



▲ (좌)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 (우)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백 원장은 “강원도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과 연계한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해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환자, 보호자에게 건강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의료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연탄봉사, 새벽시장 무료 혈당 측정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두껍게 쌓인 60년 세월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비가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내려간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9월부터 전립선 등 초음파 검사비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 생식기 초음파의 약 85%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 적용 이전	평균 가격	5만 5,000원	7만 6,000원	10만 7,000원	15만 6,000원
보험 적용 이후	외래	2만 7,700원	3만 4,600원	4만 5,100원	5만 6,300원
	입원	1만 8,500원	1만 7,300원	1만 8,000원	1만 8,800원

질환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인 환자에게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고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낭만의 계절 가을, 문화 향기에 취해볼까?

주변 풍경이 가을에 물들어 간다.
단풍은 물론 우리네 감성까지 오색 빛을 띤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이 시기 강원도의 가을은 다양한 축제와 낭만적인 풍경으로 가득하다.
각양각색 축제 현장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가을을 만끽하자.



가을, 정취 따라 거닐다



은빛 물결을 만나다

‘민동산억새꽃축제’

강원도 정선군의 민동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해발 1,118m의 민동산이 가을철 억새꽃으로 덮여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만들었다. 민동산은 산 이름처럼 나무가 없이 맛있는 외관을 지녔는데 이는 과거에 민동산에 산나물이 많이 나게 하려고 주민들이 매년 한 번씩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그 덕에 민동산에 억새가 많이 자라게 됐다. 억새꽃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피며, 산자락에는 삼내약수와 화암약수가 있다. 증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해발 800m의 발구덕마을에 이른 다음 왼쪽 등산로를 따라서 오르면 억새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주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오른 뒤 발구덕마을을 거쳐 증산마을로 하산한다. 약 9km 거리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기간 | 2019.9.27.~2019.11.10.
장소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민동산로 12
문의 | 정선군콜센터 1544-9053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tour/jeongseontour/festivals>

가을 정취 지수 ★★★★★



두 발로 원주를 누비다

‘원주국제걷기대회’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과 원주시가 주최하는 국제 대회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대만 등 20여 개국의 외국인과 국내 걷기 가족이 함께 원주의 가을 거리를 걸을 예정이다. 원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며 주요 행사장은 원주따뚜공연장이다.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므로,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코스는 5km, 10km, 20km로 구분된다. 걷기 대회에 이들 모두 참가하면 표창을 받게 되고, 참가자들은 대회에 참가한 횟수를 수놓은 자수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코스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참가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회장에서 진행되는 건강증진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홍보 전시회 등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간 | 2019.10.26.~2019.10.27.
장소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70 원주따뚜공연장(주 행사장)
문의 |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033-762-2234
홈페이지 | <http://www.koreawalk.kr>

가을 정취 지수 ★★★★★☆

가을, 풍요함을 즐기다



인형극을 한자리에 모으다
‘춘천인형극제’

1989년 시작해 올해로 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춘천인형극제는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춘천인형극제는 국내외 세계 각국의 인형극단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이외에도 인형극의 국제 교류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번 축제 역시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공연작은 국내 초청작, 해외 초청작, 국내 경연작, 자유 참가작, 특별 공연, 거리 공연, 레브레 공연으로 구분되며, 축제 전 기간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펼쳐 관객들에게 풍성한 예술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9월 27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최대의 인형 퍼레이드를 만날 수 있으며, 춘천시청 광장에서 전야제가 개최된다.

기간 | 2019.9.28.~2019.10.3.

장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017

문의 | (재)춘천인형극제 033-242-8452

홈페이지 | <http://www.cocobau.com>

가을 정취 지수 ★★★★★☆



연어의 모든 것을 누리다
‘양양연어축제’

양양연어축제는 1996년 11월 중순 남대천에서 최초로 연어낚시대회를 개최한 이후 1997년부터 양양군의 축제가 됐다. 행사의 주 무대인 남대천은 평창과 강릉의 경계인 오대산 두로봉 근처 골짜기에서 발원해 부연동, 범수치계곡, 여성전계곡, 양양읍을 거쳐 동해로 흐르는 강이다. 이곳에서 산란한 연어는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 알래스카, 베링해 등지를 돌며 성장한 후 가을 무렵 하루 2,000여 마리씩 남대천으로 회귀한다.

행사장에서는 풍농 및 풍어와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제례 행사인 용왕제를 비롯해, 연어 맨손 잡기 체험, 연어 및 향토음식 전문점, 셀프구이 코너 등 다양한 체험행사 외에도 EDM 파티,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연어 탁본 뜨기, 연어생태체험관 등 다양한 상설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기간 | 2019.10.24.~2019.10.27.

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남대천 둔치)

문의 | 양양관광안내 033-670-2724

홈페이지 | http://festival.yangyang.go.kr/site/salmon_festival

가을 정취 지수 ★★★★★☆

가을, 민족의 얼을 기리다



신라 장군의 해양정신을 되새기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신라 시대 삼척에서 출항해 우산국을 우리 영토로 복속한 신라 장군 이사부의 해양 개척 역사와 진취적 해양 정신을 기리고자 해양 문화의 도시 삼척에서 펼치는 역사 문화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해상왕국, 부활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개막에 앞서 이사부 출항지 기념비 앞에서 이사부 숭모제가 진행된다.

같은 시각 삼척시 정라동 육향산 일원에서는 삼척 이사부 장군 위령제 및 수륙대제가 펼쳐진다.

특히 삼척시민 예술가들과 전문 배우들이 함께 참가해 만드는 시민 뮤지컬 ‘사자후’와 마을 주민들과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퍼레이드 ‘부활의 바람’은 축제의 백미다. 이외에도 학술/대회, 체험, 공연, 마켓 등 분야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기간 | 2019.10.4.~2019.10.6.

장소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45

문의 | 삼척시청 033-570-3844

홈페이지 | <http://www.yisabu.com>

가을 정취 지수 ★★★★★☆



전통문화의 향연에 빠지다
‘정선아리랑제’

정선아리랑은 전국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아리랑 중 유일하게 무형문화재(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1971년)로 지정된 전통 토속민요로,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정선에서는 이미 5,000여 수의 가사를 채록하는 등 현재에도 끊임없이 창작되고 불리는 생명력 있는 문화유산이다.

정선아리랑제는 이러한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을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4회를 맞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가장 오래된 축제다. 이번 축제는 ‘하나 된 아리랑,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한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아리랑’을 통해 남북화합 및 평화를 기원할 예정이다. 2019년 강원도 대표축제 및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로도 선정된 정선아리랑제는 핵심 콘텐츠인 주제 공연을 비롯해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9개 읍·면 지역 특색을 표현한 아라리 길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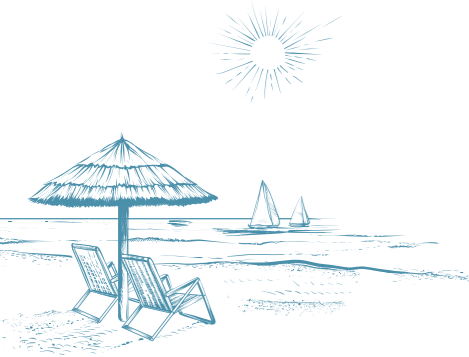
기간 | 2019.10.4.~2019.10.7.

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12

문의 |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033-563-2646

홈페이지 | <http://www.arirangfestival.kr>

가을 정취 지수 ★★★★★☆



오늘만큼은 럭셔리하게! 삼척에서의 브로맨스

어느새 뒷모습을 보이며 멀어지는 울여름을 배웅하고자 심평원 대표 훈남 콤비가 삼척을 찾았다. 시원하게 부서지는 청량한 동해 파도로 막바지 여름 더위를 씻어낸 두 남자의 삼척 여행을 함께한다.



향했다. 삼척해변과 연결된 형태로 조성된 삼척 쉼비치는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중앙광장으로 유명한 럭셔리 리조트다.

조광렬 주임은 “삼척 쉼비치에 올 때마다 가족끼리 놀러 오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가정을 꾸린다면 첫 여름휴가를 꼭 여기서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찾은 삼척 쉼비치의 커피전문점 마마티라 다이닝은 전망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정면으로는 수평선에 걸쳐진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왼쪽으로는 동해 명물인 촛대바위를 오른쪽으로는 삼척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시원한(그리고 고가의)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섰다. 다행히 제법 높은 기온에도 속이 땀 뚫릴 만큼 광활한 동해를 품은 경치 덕분에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했다. 다소 적은 커피 양에 상처받은 마음이 한순간에 풀렸다.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잠시 둘만의 시간을 요청했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대화에 폭 빠진 모습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정해 보였다. 하지만 강조하건대 어디까지나 동료이자 친한 형과 동생일 뿐이다. 참고로 마마티라 다이닝 2층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운영하는데 높은 층고 때문에 한층 장엄한 동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오늘은 고급스럽게!

심사평가원 대표 골드 미스터로 꼽히는 노성욱, 조광렬 주임이 강원도 삼척으로 일일 여행에 나섰다. 지난해 입사한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을 위해 한껏 멋을 내고 나왔다. 꽃보다 아름답게! ‘럭셔리 브로맨스 여행’을 떠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새벽에 출발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삼척해수욕장이었다. 옥빛 바다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삼척해수욕장은 명실공히 이 지역 대표 관광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남자 둘이서 그것도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부터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어색했는지 동해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는 데 만족하기로 했다.

노성욱 주임은 “삼척은 처음 방문했는데 끝없이 펼쳐진 깨끗한 동해 덕분에 무더위까지 씻겨나가는 느낌이다”라며 “내년에는 여름 한복판에 찾아와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라고 말했다.

삼척해수욕장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고자 동해의 유명 리조트 쉼비치호텔&리조트 삼척(이하 삼척 쉼비치)의 커피전문점으로



삼척 정복, 하루로는 부족해 다시 도전할 것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제법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까닭에 두 사람은 조금 이른 점심을 먹기로 했다. 메뉴는 삼척 향토음식으로 유명한 곰치국이였다. 삼척의 곰치국은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으로 1년 내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메뉴다.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삼척중앙시장의 곰치 전문식당에 들어간 두 사람은 제법 큰 그릇 가득 담겨 나온 음식을 씹씩 비워냈다.

조광렬 주임은 “곰치 살이 이렇게 담백하고 부드러운 줄 몰랐다”라며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 될 것 같다”라고 평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향한 곳은 새로운 지역 명물이 된 삼척해상케이블카였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장호항을 끼고 조성된 삼척해상케이블카는 용 모양의 역사 2개가 마주 보는 형태를 띠고 있다.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삼척해상케이블카에서는 자연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한 케이블카 주변으로 해양레일바이크와 어촌체험마을, 해신당공원, 해상로프웨이 등 다양한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관광객이 몰린다.

노성욱 주임은 “공중에서 동해의 청정해변을 내려다보니

지상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라며 “시간만 있다면 해양레일바이크나 해상로프웨이, 투명카약 등 인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라고 한정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점심이 과했던 것일까.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은 포만감이 과해 당초 환선굴로 향하기로 했던 일정을 즉석에서 바뀌 관동팔경의 제일루로 불리는 죽서루로 향했다. 죽서루는 잘 다듬어진 길을 품고 있어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까닭이다.

조광렬 주임은 “죽서루만 조선 시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하다. 자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줄 처음 알았다”라며 몸을 기분 좋게 휘감는 여름 바람을 만끽했다.

빽빽한 일정에 부지런한 발걸음을 더했지만, 수많은 관광명소를 자랑하는 삼척을 다 둘러보기에 하루는 턱없이 짧았다. 지나가는 계절의 아쉬움만큼이나 두 사람의 짧은 여행도 안타깝게 마무리할 시각이었다. 하지만 삼척의 매력에 푹 빠진 두 사람은 이미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머지않은 시일, 철저한 준비와 넉넉한 일정으로 삼척 폴코스 여행을 선언한 두 사람의 다음 여행이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조광렬 주임

노성욱 주임

‘삼척 첫 여행 10점 만점에 10점’

저는 삼척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사실 광렬이가 적극적으로 삼척을 추천해서 이곳을 선택했는데, 의구심을 가졌던 제가 민망할 정도로 최고의 관광지라는 주장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삼척에 대해 묻는다면 ‘만점의 관광지’라는 말로 강력히 추천하려 합니다.

노성욱 주임(서울사무소 심사관리부)

‘조만간 삼척 완전 정복 나설 것’

삼척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매번 의도치 않게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당일치기 여행이어서 퍽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성욱이 형이 삼척에 푹 빠진듯하니 조만간 조금 긴 일정으로 그간 가보고 싶었던 삼척 곳곳을 완전히 정복할 예정입니다.

조광렬 주임(원주 본원 정보지원부)



삼척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삼척해수욕장

1984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삼척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삼척 시내에서 1.4km가량의 근거리에서 있으며, 해안선에서 약 150m까지는 수심이 1~1.5m로 얇고 고운 모래가 펼쳐져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해수욕장 뒤편으로는 송림이 울창하며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삼척해수욕장 / 033-570-3843



솔비치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 마을의 하얀 외벽과 파란색 지붕의 조화가 돋보이는 그리스 키클라딕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만든 호텔&리조트이다. 운영을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객실과 각종 편의시설이 깔끔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무엇보다 바다 물놀이가 다소 위험한 어린이들을 위해 자체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비율이 높다.

-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453 / 1588-4888



장호항

반달 모양의 새하얀 해안선과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깨끗한 백사장을 자랑하는 장호해수욕장을 끼고 있다. 장호해변과 절벽을 따라 가벼운 산책로가 조성돼 있으며 매년 여름마다 투명카누 생태체험, 스노클링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죽서루

삼척시 서편을 흐르는 오십천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고 있다. 작지만 훌륭한 산수를 가진 덕에 옛날에는 여름이면 많은 선비가 이곳을 찾아와 더위를 피했다고 한다. 루에 올라 내려다보는 오십천의 잔잔한 물살과 햇살을 가리는 짙은 녹음을 즐기노라면 마치 조선 시대 선비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 / 033-570-3670



잠자는 텀블러로 일상 속 변화를 일깨우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월간 텀블러'로 환경과 건강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월 5일, 본원 1층 카페 앞에서 '월간 텀블러' 캠페인을 실시했다. '월간 텀블러'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과제에서 선정된 시민 제안이다.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부터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이날 행사를 돌아본다.



환경 파괴의 주범, 플라스틱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 세계 1위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펴왔고,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생산하는 데는 불과 5초, 분해되는 데는 무려 5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 저렴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따르는 대가는 저렴하지도 가볍지도 않다. 폭넓은 활용도로 일상 곳곳에 침투한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돼버렸다. 물론, 진짜 주범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남용하는 사람들이다.

환경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과제에서 원주시 남현경 시민의 제안 '월간 텀블러'를 선정했다.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해 일회용 컵 사용만 줄여도, 플라스틱 소비량을 상당 부분 줄임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심평원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은 주민이 새로운 해법을 제안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과제다. 작년 춘천에서 열렸던 강원혁신포럼(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강원사회혁신플랫폼)에서 발굴한 이 '월간 텀블러'는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역점을 둔 제안이다. 즉, 거창하거나 참신한 주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월간 텀블러' 과제는 2019년 8~11월 4개월간, 매월 첫째 월~금요일에 캠페인 형태로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부 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텀블러 사용 촉진 캠페인을 벌인다.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캠페인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이 텀블러를 가져오면 무료 커피를 제공하며, 텀블러 사용 시 캠페인 스티커를 나눠준다. 또한, 스티커가 붙은 텀블러를 다음 달에 가져오면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해법

지난 8월 5일 월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층에서 '월간 텀블러' 첫 캠페인이 시행됐다. 1층 카페 앞 휴식 공간에 2개의 배너가 설치됐다. '우리의 텀블러 사용이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그 텀블러, 정말 깨끗한가요?'라는 배너의 문구가 모여드는 사람들을 반겼다. 이어 공식 행사가 시작됐다. 첫 번째 순서로 제안자 강연이 있었다. 제안자 남현경 씨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됐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고 죽은 새,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 한 번도 플라스틱을 써본 적 없는 그들이 왜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현경 씨는 "텀블러 사용은 특별할 게 없는 제안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가장 자주,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중 하나"라면서 과거, 텀블러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중단한 이유를 들어봤다고 했다. 그들에 의하면 텀블러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위생 문제(세척이 어렵다), 편의성(무겁다, 종종 내용물이 흐른다), 가격(비싸다) 등이 있었다. 남 씨는 우선 위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알약(정제) 형태의 세척제 사용을 제안했다. 세척제의 주성분은 환경과 건강이라는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다.

플라스틱 줄이기, 강원도 전체로 확산시킬 것

남 씨는 "실천은 '무엇?', '왜?' 이상으로 '어떻게?'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실천 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일회용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나 머뎀러 사용도 줄여야 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는 "텀블러 사용을 보편화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원주시 전체로 확산됐으면 한다"라고 희망사항을 전했다. 제안자의 강연에 이어, 직원과 시민들에게 텀블러와 세척제 증정식이 있었다. 텀블러는 지난 7월 직원들이 기증한 것들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잠들어있던 텀블러가 깨어나 새로운 주인과 만난 것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과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기획팀의 조수용 부장은, 강원도 주민이 제안한 총 20여 건의 제안 중 '월간 텀블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높은 실행 효과를 꼽았다. 조수용 부장은 "재미있고 참신한 제안도 꽤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사람들은 거의 매일 커피나 주스를 마신다. 거의 매일 찾는 카페와 관련된 제안인 만큼, 높은 실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부장은 "본원이 주체가 돼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강원도 전체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기력의 늪에 빠지지 않았나요? ‘번아웃 증후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했다. 질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번아웃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장작이 타다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면 되지만, 완전히 연소해 재가 됐다면 불을 붙이려 해도 다시 타오르지 않는다. 번아웃 증후군은 이처럼 마음의 기력이 완전히 연소한 상태를 뜻한다.

직장인 박 씨의 번아웃 증상

직장인 박 씨는 번아웃 상태다. 매일 아침 출근할 생각만 하면 괴롭고, 출근한 뒤에도 종일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 만사가 귀찮아 손도 까닥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 그러니 일을 제때 끝낼 수 없고 한없이 밀린다. 어쩌다 성과를 내거나 칭찬받아도 기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생

각만 한다. 과거에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며 재충전했지만, 요즘은 취미 생활도 싫고 친구를 만나도 피곤하니 애초에 약속을 잡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걱정은 수시로 한다. 그러니 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고 하루 날을 잡아서 잠만 자도 몸이 피곤하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

당신은 정말 번아웃 증후군인가?

힘들면 쉬어야 한다. 쉬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심화되는 경쟁과 구직난으로 근로자 대부분 마음 편히 쉬 수 없다. 일에 따른 보상이라도 충분하면 보람이 있겠지만, 생활비를 빼면 남은 돈이 없을 때가 허다하다. 일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이렇듯 단순히 먹고 살려고 일하다 보면 누구나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여기에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더해지면 번아웃을 더욱더 심하게 한다. 한편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면 집에서도 짜증이 난다. 하지만 가족의 위로도 하루 이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까지 짜증을 낸다. 집에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결국 아무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 집에서 이리하니 직장에서도 지치고 힘들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점차 번아웃이 심해진다.

그런데 스스로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사실 우울증일 때가 많다. 우울증에 걸리면 자주 짜증 나고 두뇌 회전도 안 되며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싫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무척 힘들고 퇴근할 때쯤 돼야 정신이 조금 맑아진다. 이런 경우울증의 경우 치료하면 번아웃도 사라진다.

음주도 이와 비슷하다. 자신은 일하기 힘들고 스트레스받아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술을 마셔서 번아웃 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니 평일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폭음한다. 보통 금단 증상이라고 하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짜증이 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되는 것도 금단증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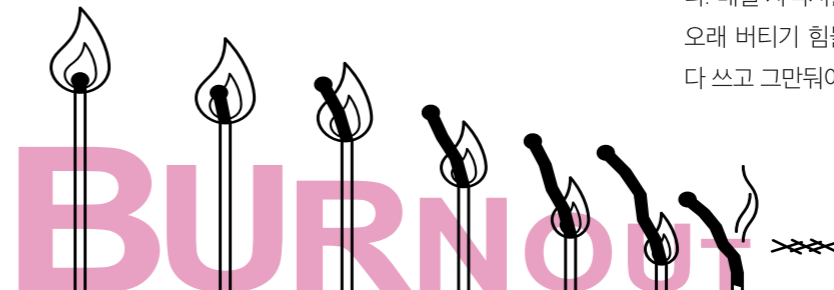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번아웃을 예방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번아웃 상황에서 성공하고자 발버둥 치며 일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드물다. 번아웃이 돼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롭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할까? 돈이 필요해서다.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덜 필요하면 일을 덜 해도 된다. 돈을 쓰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번아웃을 유발하는 곳이라면, 우선 적절하게 소비를 통제하고 일정 부분 저축해야 한다. 당신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다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돈에 쫓돌리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상황을 길게 볼 필요도 있다. 수입을 늘리지 못하는 한 당신을 계속 착취하며 번아웃시키는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기술을 익히든 능력을 키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든, 당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이 아닌, 상사나 동료로 인해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좋은 사람이 모여 있는 직장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번아웃 되는 상황에 빠지면 헤어내기 힘들다. 자신을 번아웃시키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번아웃 됐는데 술까지 자주 마신다면 술을 끊어야 한다. 술은 상황을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울하다면 우울증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번아웃 상태에서는 쉬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휴가를 자주 쓰면 눈 밖에 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번아웃 상태를 끌고 가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고된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고되는 것보다 차라리 당장 휴가를 쓰는 편이 낫다. 매일 사직서를 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 어차피 그만둘 직장이라면 휴가라도 다 쓰고 그만뒀야 하지 않을까?



HIRA News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8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지역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를 개장했다.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는 원주 지역 노숙인들에게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작물 재배 컨테이너(스마트팜)를 운영하도록 하여 수익 창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다. 심사평가원은 향후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한 컨테이너 스마트팜 2개 동과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숙인의 자립을 후원할 계획이다.



한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춘천시 옥천동 소재)에서 한림대학교(총장 김중수)와 보건 의료 분야 데이터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 및 산·학·관 공동연구 프로그램 상호 협력 ▲건강보험 및 보건 의료 학술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날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 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등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공동 ‘인권 감수성’ 함양 행사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8월 7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감수성’ 함양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일본군 노예제 문제와 (故)김복동 할머니의 생애’를 주제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상임대표가 강의했다. 또한 8일에는 원주시민연대, 원주평화의소녀상 시민모임과 함께 원주혁신도시 영화관(메가박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My Name Is KIM Bok-Dong)’을 관람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특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원주 본원 도서관에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궁금한 지역 주민, 심사평가원 직원 및 자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마주 이야기,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의 저자 박문희 작가를 초청해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29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내 도서관에 원주시순회문고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강원지역발전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27일 본원 임원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시, 원주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강원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산·학·관 클러스터 기반 오픈 캠퍼스 운영 사례 발표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산·학·관 클러스터 기반 오픈 캠퍼스 운영 사례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과 경험을 이전하고, 지역사회 상생 및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전경영현장 선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30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동 안전경영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HIRA 안전 3대 전략’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선포식에서는 ①안전 중심 경영원칙 정착 ②근로자 등 생명·안전 보호 ③국민 의료 안전망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한 3대 전략이 선포되었다. 김선민 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기획상임이사)은 “지속 가능한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ETTER
독자의 편지

'제2회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 기사를 반갑게 봤습니다. 지역민에게 먼저 손 내밀고 함께하는 가치, 건강한 나눔을 실천하는 심평원의 모습이 참으로 믿음직합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의 선두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도 함께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조석 님 -

모든 기사를 꼼꼼히 읽고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걸 뽑는다면 '살리에리 증후군' 기사에 실린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네요. '열등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닌,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100% 동감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겠지요. 축축 처지는 무더운 여름, 그래도 모두 힘내자고요!

- 경남 밀양시 송지영 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이번 호 특별기획 조예슬 주임의 입사 N주년 기념사진을 보며 참 부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해도 아직 8월이니 늘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올 추석 명절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심평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 서울시 구로구 이춘성 님 -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9년도 7·8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강순찬(서울시 동작구), 김연수(전남 목포시), 김은미(대구시 수성구), 박민숙(부산시 수영구), 박재욱(서울시 도봉구), 박정근(경기도 남양주시), 배정미(부산시 남구), 송지영(경남 밀양시), 심재호(부산시 북구), 예은지(대구시 북구), 위복량(서울시 양천구), 윤정(대구시 달서구), 이은정(경기도 고양시), 이춘성(서울시 구로구), 전선미(경기도 군포시),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진선미(서울시 구로구), 최영수(대구시 수성구), 최은순(전북 남원시), 최화영(경기도 성남시)

좋은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맞힌 독자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웹진(hirasabo.or.kr)' >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하반기 교육 안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8년 5월부터 시행)

교육 일정

- 1회차 : 2019년 11월 3일(일)
- 2회차 : 2019년 11월 10일(일)

장소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ko.surveymonkey.com/r/mydoctor2019_1

QR 코드

- play store/App store에 'QR code 리더' 검색 및 설치
- 휴대폰 카메라 통해 우측의 QR code 읽기
- 교육 신청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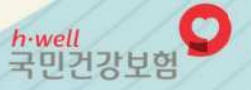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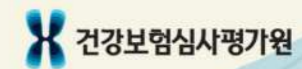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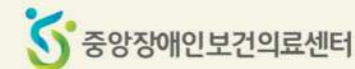


이메일

healthservice2018@korea.kr에 신청서 제출

우편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우)01022



대한민국 건강 팀플레이

심평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관계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료소비 덕분에
 대한민국 건강 팀플레이를 만들어 갑니다

진심과 공평, 심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모델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기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실시(2019년도, 1차)	46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2019년도, 상반기)	48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50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실시(2019년도, 하반기)	52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및 대상 항목	54
안과 전문병원 제도	56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58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실시 (2019년도, 1차)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

평가 배경 및 목적

- 기존 병원급 평가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대상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또한, 중소병원 예비 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 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큰 편차와 '감염 및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평가 초기 단계에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 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

- 평가 대상 기관
 -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 평가 대상 기간
 - 2019. 11. ~ 2020. 10.(12개월)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지표 및 평가 자료

구분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청구 자료	현황 신고 자료	조사표 자료		
구조	인력	1	의사 1인당 환자 수	○	○	
		2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	○	
	시설	3	다인실 평균 병상 수		○	
		4	감염 예방 관리 체계			○
	운영 체계	5	환자 안전 관리 체계			○
		6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			○
과정	관리 활동	7	감염 예방 관리 활동			○
		8	환자 안전 관리 활동			○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 전체 및 기관별 결과 등을 산출합니다.
-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 구성 및 진료 환경 등 병원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기관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유형, 규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평가 결과의 적용

- 평가 대상 요양기관에는 질 향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평가 결과 공개 여부, 범위, 방법 등은 추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19년도, 상반기)

평가 목적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약품비에 대하여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 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14년 9월 1일부터 반기별로 총 9회 차 지급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반기 단위) 9차 2018년 7월~12월 진료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됨

평가 내용/산출 방법

-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 저가 구매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가 감소한 경우
- 저가 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구분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저가 구매 장려금
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감소절감액 × 기관별 지급률 - 사용량 감소절감액: (기대 약품비 - 실제 약품비) - 지급률: PCI 1.0일 때 35%(최소10~최대50%) ※ 입원 외래 각각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구매절감액 × 기관별지급률 - 저가 구매절감액: 2약제별(상한가-실구입가) × 사용량 - 지급률: PCI 1.0일 때 20%(최소10~최대30%) *약국의 경우 기본 지급률(20%) 적용 ※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입원 외래 각각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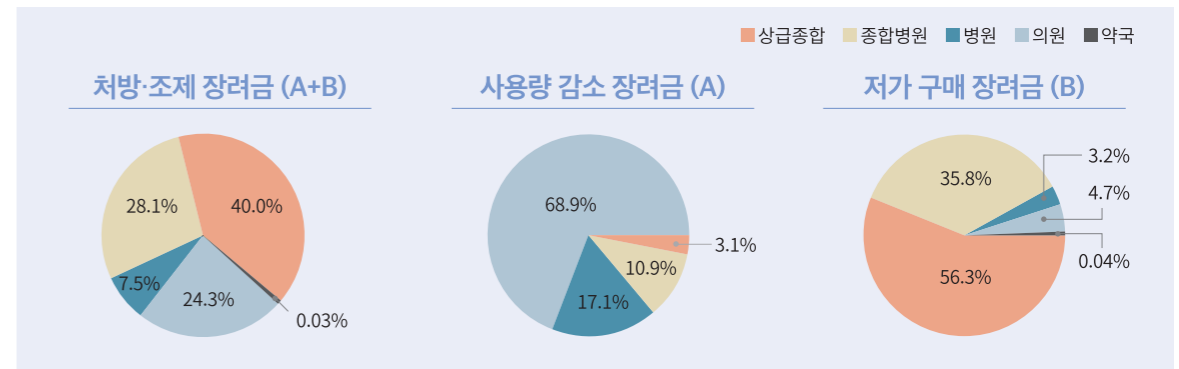
** 약품비 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평가 결과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

(단위: 기관 수, %, 억 원)

구분	처방·조제 장려금(A+B)			사용량 감소 장려금(A)		저가 구매 장려금(B)	
	기관 수	금액	평균 (만 원)	기관 수	금액	기관 수	금액
전체	6,420 (100.0)	503 (100.0)	784	5,466 (100.0)	154 (100.0)	1,444 (100.0)	349 (100.0)
상급종합	42 (0.7)	201 (40.0)	47,927	16 (0.3)	5 (3.1)	42 (2.9)	197 (56.3)
종합병원	224 (3.5)	142 (28.1)	6,325	141 (2.6)	17 (10.9)	170 (11.8)	125 (35.8)
병원	676 (10.5)	38 (7.5)	558	566 (10.4)	26 (17.1)	272 (18.8)	11 (3.2)
의원	5,456 (85.0)	123 (24.3)	225	4,743 (86.8)	106 (68.9)	938 (65.0)	16 (4.7)
약국	22 (0.3)	0.2 (0.03)	71	-	-	22 (1.5)	0.2 (0.04)



- 산출 대상은 총 46,771기관, 약품비 68,165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6,420기관에 503억 원 산출되었으며, 그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5,466기관에 154억 원이며, 저가 구매 장려금은 1,444기관에 349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 및 산출 결과 확인 방법

- 향후 계획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PCI(약품비 고가도 지표)가 높은 기관을 1:1방문해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1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0년 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산출 결과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요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의뢰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1단계 진료기관')과 회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2단계 진료기관') 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배경 및 목적

- 2015년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 제기
-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과 함께 의뢰·회송의 내실화 필요성 제기로 시범사업 시작

• 시범사업 기간: 2016년 05월~

• 시범사업 대상

- **(대상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2단계 진료기관 및 해당기관과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1단계 진료기관
 - ※ 1단계 진료기관: 의뢰를 담당하는 기관 [예] 의원, 병원, 종합병원]
 - 2단계 진료기관: 회송을 담당하는 기관 [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 **(대상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이 필요한 자 및 회송받은 환자에 대해 원격협진이 필요한 자. 단,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 시범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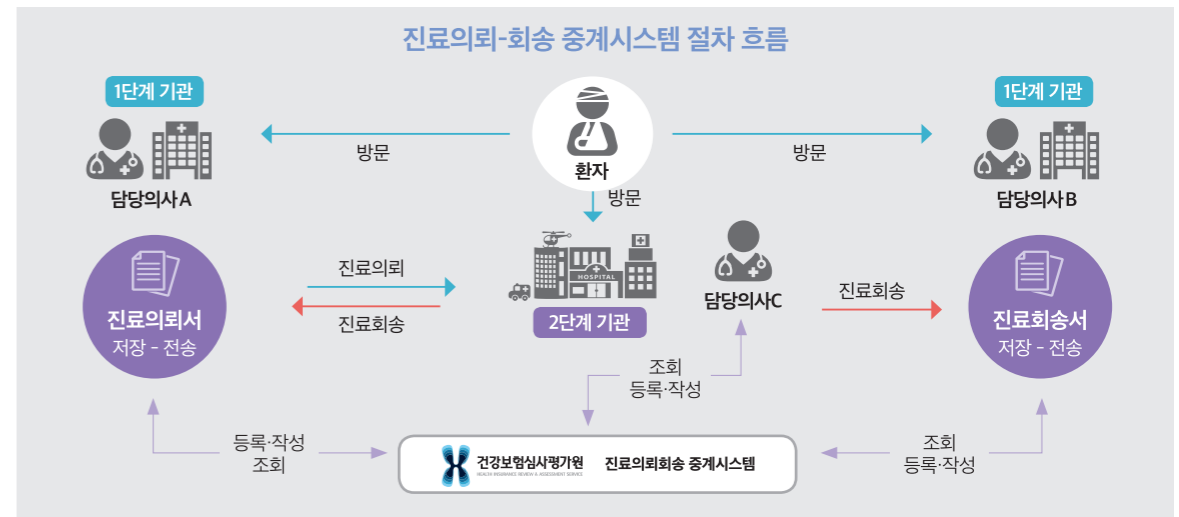
- **(진료 의뢰)** 1단계 진료기관에서 협력관계의 2단계 진료기관으로 요양급여 의뢰, 외래진료만 해당
- **(진료 회송)** 2단계 진료기관에서 1단계 진료기관으로 요양급여 회송, 외래/입원진료 모두 해당
 - * 퇴의뢰: 진료받았던 기관으로 회송
- **(원격협력진료-회송 후)** 회송 후 진료상 필요시 환자를 대면하면서 실시간 원격협진, 의뢰기관, 자문기관 모두 해당

• 환자 본인부담 비용: 면제

• 진료의뢰-회송 절차

의뢰환자관리료		회송환자관리료	
의뢰서 작성	의뢰를 실시할 때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산정	회송서 작성	회송을 실시할 때 요양급여회송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산정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에게 적절한 2단계 협력진료기관 선정 2) 해당기관에 의뢰 사실을 알려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기관) 3) 요양급여 의뢰서 중계시스템 등록 및 전송 4) 그 외 첨부자료는 필요에 따라 제공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1단계 협력진료기관 선정 2) 해당기관에 회송사실을 알려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협력기관 우선, 불가피한 경우 비협력기관 선정 가능) 3) 요양급여 회송서 중계시스템 등록 및 전송 4) 그 외 첨부자료는 필요에 따라 제공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안내



• 진료의뢰·회송 중계포털 경로 (URL: <https://di.hira.or.kr>)

문의 전화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수가 및 청구방법 관련
 - 의료수가실 일차의료수가부: 033-739-1557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Agent 개발 및 중계시스템 관련
 - 심사청구운영실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2224, 2225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실시 (2019년도, 하반기)

배경 및 목적

- 현지조사는 의료급여기관이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으로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이 있습니다.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청구 행태를 정착시키는 물론 의료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2019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조사 항목은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2019.2.22)를 거쳐 3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2019년 5~6월 실시)

-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 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②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2019년 7월 실시)

-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 행태 개선과 청구 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10개소

③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2019년 10월 예정)

-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
-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20개소



-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등을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조사대상 사전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한다!'('19.3.20)를 통해 사전예고하였습니다.
- 3개 항목의 지표 상위 기관 2,500개소의 기관에 대하여 사전예고 안내하였고 의약관련단체, 보장기관(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사항을 협조 요청 및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실시 안내

-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 50개 기관 중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기관(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병원급 이상 10개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거쳐 5월부터 7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중 의원급 이상 20개소에 대하여 10월 중 2019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올바른 진료·청구 행태 정착을 위해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및 대상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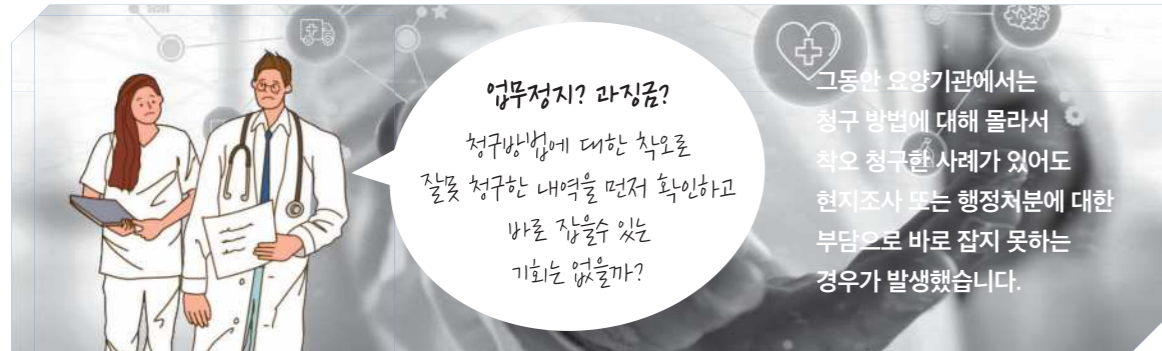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 보호 제도

자율점검제란?



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단순착오 청구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현지조사 이전에 자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1. 인·후두소작술[자226] - 2019. 4.
인·후두염, 편도염 등에 간단한 구강 처치(기본진료료에 포함) 실시 후 인·후두소작술로 착오 청구
2. 약국 차등수가 - 2019. 4.
시간제 근무나 근무하지 않은 약사가 근무한 것 등으로 차등수가 착오 청구
3. 치과 임플란트 - 2019. 4.
임플란트는 단계별(1~3단계) 청구 원칙, 3단계 보철수복에서 GOLD 등의 비급여 재료 사용 시, 2단계 포함하여
전체 비급여임에도 급여로 청구
4.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 2019. 5.
영상진단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판독료 청구
5.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산정 착오 - 2019. 7.
촉탁의가 요양시설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 시, 외래관리료만 산정하여야 하나 초·재진 진찰료로 착오 청구
6. 의치 조직면 개조[차151] - 2019. 7.
첨상 직접법 시행 후 급여비용이 높은 개상 및 첨상 간접법으로 착오 청구
7.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2019. 7.
의약품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불일치 발생
8.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아] - 2019. 8.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Ⅲ~Ⅴ)는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착오 청구
9.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자9] - 2019. 8.
식약처 허가사항 등 급여 기준을 초과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제의 병변내주입요법 실시 후 착오 청구





안과 전문병원 제도

안과 전문병원이란?

- 안과 진료과목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 중에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의료 인력', '필수 진료 과목', '병상 수',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총 7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안과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안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인수	최소 병상 수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MDC 'C' 눈의 질환 및 장애 45% 이상	연 환자 수 96명 이상	안과	8명 이상 (안과)	30병상	70점 이상	인증

안과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병원의 전문 인력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1개, 진료 과정 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결과지표 4개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과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구조	안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과정	수술 전 기본 검사 실시율
	5개 분야 주요 수술 실시율
	5개 분야 주요 수술 실시 유무
	C.P 유무 (백내장수술, 유리체절제술, 섬유주절제술)
	C.P 적용건율
결과	수술 예방적 항생제(녹내장수술)
	안내염 및 합병증 발생률
	백내장 수술합병증 발생률
	입원일수 장기도지표(건당 입원일수, LI) 진료비 고가도지표(건당 진료비, CI)

안과 전문병원 현황

- 3기(2018~2020) 안과 전문병원은 현재 9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3개 기관, 부산광역시 1개 기관, 인천광역시 1개 기관, 경기도 1개 기관, 광주광역시 1개 기관, 대구광역시 2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과 전문병원 현황

요양기관명	지역	대표 전화번호
실로암안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02-2650-0700
김안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577-2639
누네안과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1661-1175
의료법인 세광의료재단 성모안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51-743-0775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032-503-3322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새빛안과병원	경기도 고양시	031-900-7700
밝은안과21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062-364-9000
제일안과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053-959-1751
누네안과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053-715-3300

전문병원 확인 방법

- 전문병원은 별도의 마크로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니, 마크로 확인이 가능하며, 안과 분야 이외의 전문병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 마크		전문병원 명단 확인 방법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 병원 규모별_전문병원
---------	--	---------------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링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준수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적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활하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주요 내용

- 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위치에 고지하고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
- ② 비급여 관련 대분류(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
- ③ 항목 코드와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코드와 명칭 기재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공개 항목의 경우 해당코드와 명칭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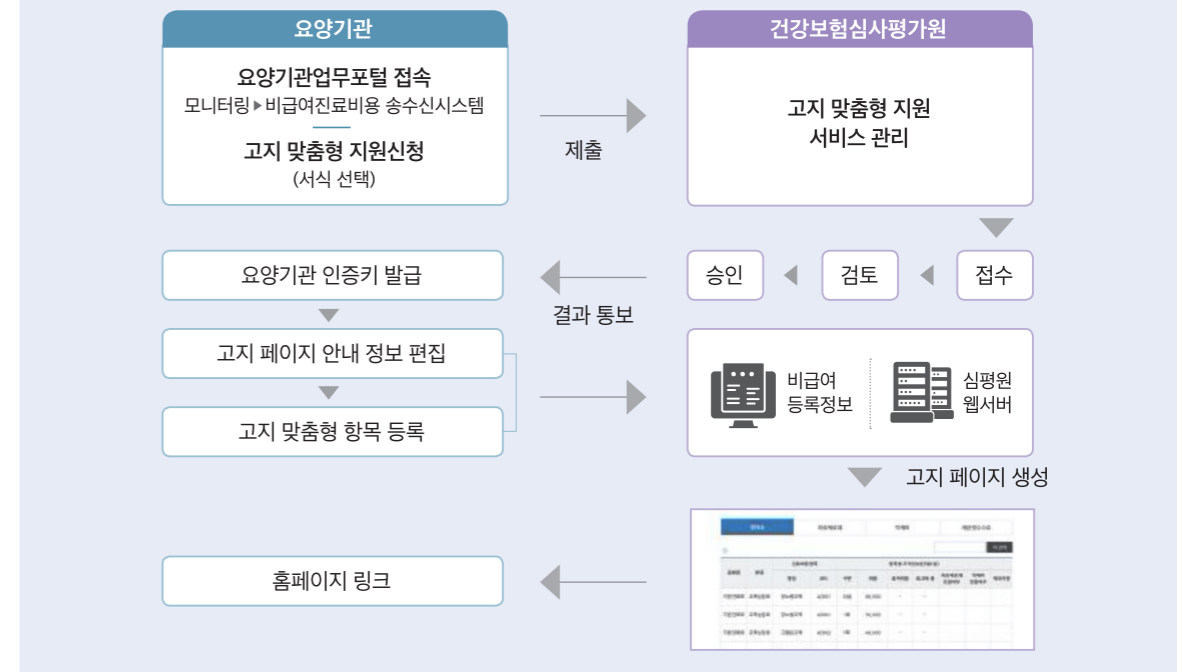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란?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해 웹 페이지 제작 시 반영할 표준화된 서식
- 분류(Category), 탐색(Link URL), 고지 양식(Lay Out), 표준속성(Meta)으로 구성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신청)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비급여 항목 수, 기존 웹사이트, UI, 스타일의 이질감 등 고려하여 웹 표준서식 선택
- (서비스 승인) 신청기관 확인 후 담당자 승인
- (자료 입력) 고지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입력
- (웹페이지 제공) 의료기관 제출 자료로 웹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링크) 제공된 페이지를 의료기관에서 링크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재
* 표준서식 복사 선택 시 고려 취사선택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프로세스





관련 질의응답

Q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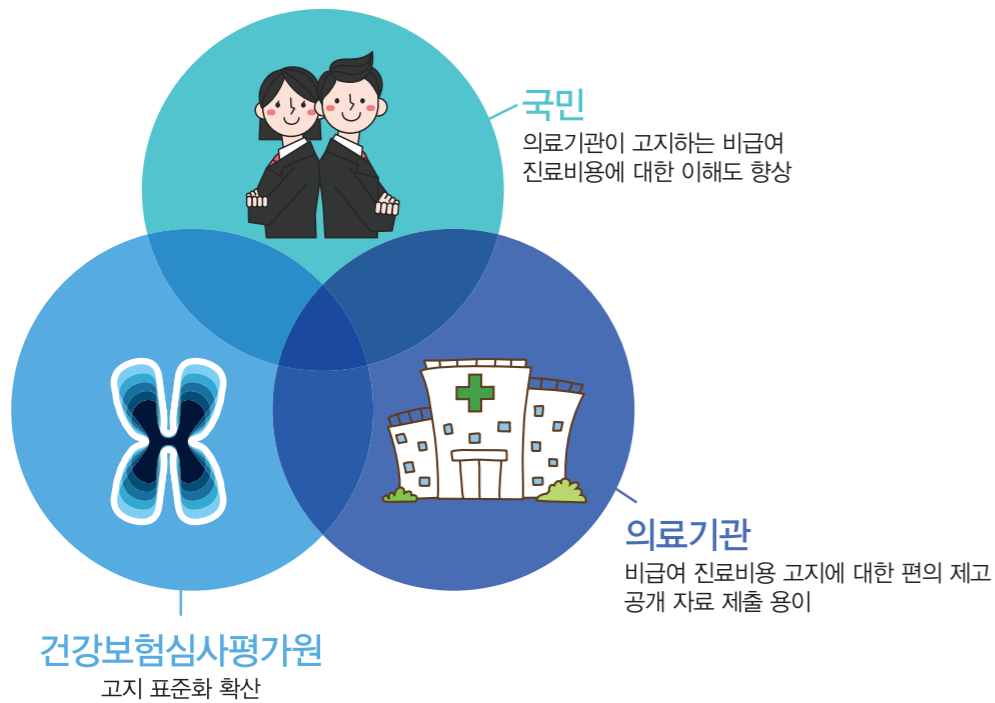
「국민」은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한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 항목 변경 시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변경된 내용을 즉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Q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심사평가원의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서 제작한 웹페이지는 장애인, 고령자 등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제작되었나요?

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발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링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